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천변 2길 6번지

2018년 7월 12일 목요일 (음 5월 29일) 제208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폭염 속 전북... 무더위를 잊으러 아이스링크장으로



전북지역 전역이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11일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전주 화산체육관 아이스링크장을 찾은 어린이들과 시민들로 장내가 발딛을 틈 없이 북적이고 있다.

# 태권도로 하나되는 세계인들의 축제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오늘부터 17일까지 무주태권도원 등에서  
태권도 품새·시범경연·실기세미나·줄넘기대회 등 프로그램 다채

제12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가 '태권도로 하나되는 세계인'이라는 슬로건으로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32개국 4천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태권도의 메카인 무주 태권도원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다.  
본 대회는 전세계 태권도인이 실력을 겨루고 우정을 나누며 교류와 화합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대회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태권도 품새대회, 태권도 시범경연대회, 실전훈련을 연상케하는 태권도 실기세미나, 태권줄넘기대회, 국가별 장기자랑, 태권도원, 반디랜드, 머투터널, 전주한옥마을 등 문화탐방, 전통민속체험, 태권도 체험, 스탬프 투어, 팽

사장 참여체험 등 문화체험, 한여름 밤의 축하공연 등이다.  
참가자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무예수련은 물론, 청정지역 무주에서 자연과 하나되어 심신이 힐링되는 소중한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더불어 T1경기장 주변에 무주특산물(천마, 머투어인 등)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가 운영되고 특히 문화탐방과 문화체험을 통해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것이다.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는 일반인을 포함한 전 세계 태권도인의 축제의 장으로 세계 태권도인의 화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태권도원의 홍보와 일반인들의 태권도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

키고 무주·전주 일대 문화탐방을 통해 전북도의 관광자원화 활성화에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제12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개최를 통해 태권도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대회기간 동안 참가 선수단과 국내외 관람객 등에게 전북의 맛과 멋을 한껏 느끼게 하는 축제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3면 -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은 누구?  
4면 - "동네책방, 인문학 거점 활용"

### 기무사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국방부는 1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 수사를 지휘 할 특별 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48·공군 대령·법무 20기)을 임명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수사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전익수 단장을 임명했다.  
/뉴시스

## '전북도민의 젓줄' 용담호

### '맑은 물 보전' 앞장

진안군, 운산 인공습지 착공  
2019년 10월 준공이 목표

진안군은 전북도민의 젓줄인 용담호 맑은 물 보전을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운산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착공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부지면적 5만7,490㎡에 침강지, 얕은 습지, 깊은 습지, 수평지하 흐름습지, 생태연못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98억 7600만원(국비 49억3800만원, 기금 39억5000만원, 군비 9억8800만원)에 대해 환경부의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 201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안군은 전형적인 농촌도시지역으로 하천의 비점오염원이 많이 발생하며 오염된 진안천의 하천수가 용담호로 직접 유입되고 있어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4년도에 발생한 용담호 녹조발생의 원인도 우기철 일시적으로 용담호로 유입된 대량의 비점오염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군은 지난 2008년부터 언건, 신지천 등 2곳에 80억 원을 투자해

인공습지를 조성해 왔다. 2021년까지 총사업비 250억 원을 들여 정자천, 구랑천 등 용담호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계속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진안천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는 진안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인공습지로 유입시켜 2차 수질을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진안군민도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와 하천 및 농경지 정화활동, 친환경제품 사용 동참, 수질 감시활동 등 수질 보전에 자발적으로 나서면서 오염원이 감소 추세에 있다.  
진안군은 이번 운산 인공습지가 조성되면 용담호로 유입되는 하천 중 오염도가 가장 높은 진안천의 수질이 개선되어 전북도민의 젓줄인 용담호의 맑은 물 보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용담호 상류의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등 사립과 자연이 함께 할 수 있는 청정지역을 보전할 수 있는 운산 인공습지와 같은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남협' 위마드, 천주교 성체 훼손 '파문'

'천주교 용어 자료집'에 성체, 예수의 몸 일컬어



남성을 혐오하고 여성우월주의 성향이 강한 인터넷 커뮤니티 '위마드(WOMAD)'에 천주교에서 신성시 하는 '성체'를 훼손한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10일 위마드 게시판에 '예수 XXX 불태웠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난 오로지 XX(여성의 성기를 일컫는 말)신만 믿는다'며 "여성을 억압하는 종교는 다 꺼져라"고 적었다.  
게시물에는 붉은색 펜으로 목살이 적힌 성체 일부가 검게 불태

워진 모습이 담긴 사진이 첨부됐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발간한 '미디어 종사자를 위한 천주교 용어 자료집'에 의하면, 천주교에서 성체는 현존하는 예수의 몸을 일컫는다. 성체를 훼손하는 것은 예수를 직접 모욕한 것으로 해석된다. /뉴시스

Hello, Modern  
군산시간여행 1830s

민선7기 출범! 새로워진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

신선들이 즐기던 곳 선유도

신비로운 섬!  
하나를 꿈꾸다

7월 16일, 선유도해수욕장이 문을 엽니다!

군산시 GUNSAN CITY ●관광문의 (063)454-3337 / ●홈페이지 http://tour.gunsan.go.kr ●선유도해수욕장 개장기간: 2018. 7.16. ~ 8. 15.